

# PEOPLE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 광주 건설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 3곳

광주시는 13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건설공사장 3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동일 시공업체가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 장비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전기·화재 위험 요소 점검, 추후 작업 재개때 안전수칙 강화 방안 검토, 사고 발생시 대응지침 및 대비계획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내 안전교육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광수 사회재난과장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 기간을 활용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작업이 재개되더라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서 어린 언어 방류 행사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3일 구례 섬진강 수변공원 일원에서 언어자원조성을 위한 ‘어린 언어 방류’ 행사를 펼쳤다.

올해로 28번째인 이날 행사에는 섬진강환경여족보존회, 구례섬진강토종어지킴이회원,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언어 40만 마리를 방류했다.

행사에 사용된 언어는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지난해 10~11월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 언어를 포획해 종자 생산 과정을 거쳐 성장시킨 어린 언어와 방류량 증대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공급받은 발안란, 동해안 해면연어에서 얻은 발안란을 부화시킨 것이다. 이현규 기자



## 서구 ‘먹거리 안전 지킴이’ 가동 조리환경 점검·맞춤 위생관리 컨설팅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발을 견어 올렸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 지킴이’가 발대식을 갖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먹거리 안전 지킴이는 이달 말부터 ‘위생 불량 NO, 주민건강 YES’라는 슬로건 아래 식품 위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이들은 지역 내 음식점, 편의점 등에 대한 조리 환경과 위생 점검, 현장 위생교육, 맞춤형 위생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 준수 의식을 향상하고, 식품사고 예방활동을 펼친다.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배달음식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컨설팅을 중점 실시한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 “농업미래 선도...세계적인 농업박람회로 이끌 터”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25년 정기 이사회 개최  
박람회 추진방향·안건 논의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사장 명창환)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단 임원 19명 중 17명이 참석해 박람회의 추진 방향과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2025국제농업박람회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사회 임원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단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임원들은 박람회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체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박람회 홍보 방식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조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쇼츠(shorts) 영상 제작을 통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남도의 음식, 여행,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 전략을 활용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AI, 스마트팜, 우주농업 등 최신 농업 기술을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세대와 단체를 아우르는 농업의 미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임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 기관 및 단체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해 세계적인 농업박람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인재육성 장학금 ‘쾌척’

광주시교육청 전달...교육기회 확대 등 사용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13일 광주시교육청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병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통해 지정 기탁되며, 학업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병철 전문건설 광주시회장은 “건설업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역 학생



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는 13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분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 광주시-기관-단체,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광주시는 13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분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제회복 3박자 정책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의 민생경제 정책 실천방안으로 추진됐다.

이기성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 광주시 공무원, 광주경제진흥생생일자리재단 직원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

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기 등 어려운 민생경제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등 전통시장 장보기도 실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후 5개 자치구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배턴을 이어받아 총 24회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고법, 외국인 민원인 통·번역 서비스

기존 업무용 장비 활용...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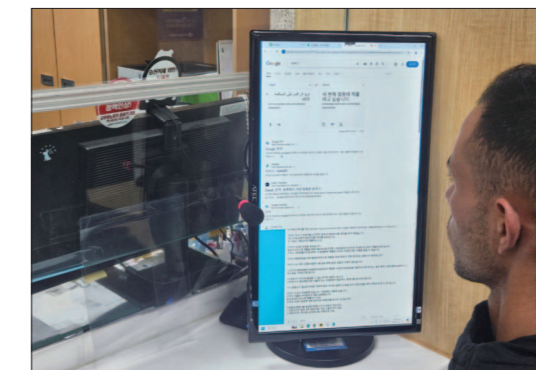
광주고법본원은 13일 외국인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청구에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비는 청사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민원인과 함께 볼 수 있는 듀얼모니터와 음성 입력용 마이크 구성됐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되고, 민원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반대로 마이크를 통해 모국어로 말하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돼 직원 컴퓨터에 표시된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언어도 100여종에 이른다.

그동안 법원은 외국인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언어 장벽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는 통역인을 지정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지만, 원스톱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통역인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다. 원격화상 통역기가 있으나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와 마이크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해 신속히 통·번역 설비를 구축하게 됐다.

광주고법법원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 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발대

한농농어촌공사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KRC 농촌공간계획 종합 지원 전담팀(TF)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른 ‘농촌공간정책 중앙지원기관’이다. 지난해 5월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공사는 정부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전담팀 역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조기정책과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족했다.

공사는 관련 부서 12개를 4개 반(총괄지원, 실행지원, 모니터링, 성과지원)으로 구성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각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을 농촌공간



계획과 연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세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기술지원,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광산구, 시니어하우스 개관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3일 광산구 원도산안길에서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광산시니어하우스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남구, 선비골 경로당 개소식 13일 광주 남구 사직동 성하맨션에서 열린 ‘선비골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한 김병내 남구청장과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남구